

당신 인생의 목소리를 들으라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파커 파머 지음

“지금 내 삶이 정말 내가 원하던 것일까? 이것이 정말 나의 길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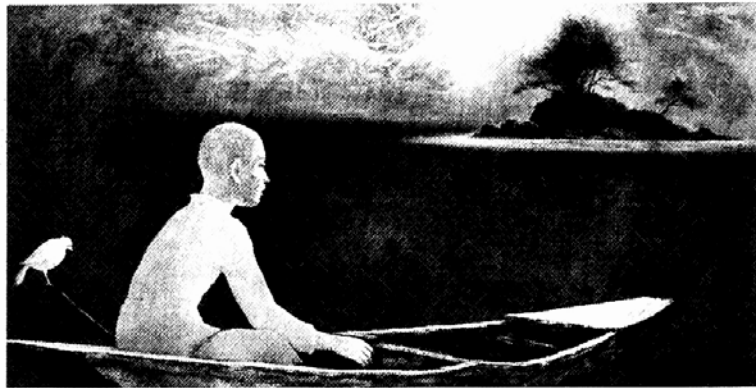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 인생의 진로와 소명에 대해 재문해본 경험은 누구나 한번쯤 있었을 것이다.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는 이맘때면 특히 그렇다. 하지만 그 질문들은 피륙우스의 따처럼 끝없이 맴돌 뿐 쉽게 결론에 닿지 않는다.

미국에서 존경받는 교육자이며 사회운동가인 파커 파머는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한문화)라는 산문집에서 ‘소명(vocation)’을 찾아 방황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실수와 시행착오, 내면의 낙약함과 어두움에 대해 솔직히 털어 놓는다.

지은이는 먼저 우리가 자기 본연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까닭은 소명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소명을 자기 인생이

원하던 원하지 않든 따라야만 하는 지고한 가치나 이상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명은 자신의 의지를 통해 만들어지거나 노력을 통해 성취해야 할 어떤 목표도 아니다. 소명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선물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자아(眞我)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은이는 소명을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든 최대한 정직하게 대답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인생에서 자기 본연의 자리를 찾을 수 있고 자신의 진정한 공동체를 찾을 된다. 이 때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모든 존재와 더불어 상호작용하며 삶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게 된다



◇저작 박항률 작(2001, 종이에 아크릴, 15.3×142.5cm).

“소명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선물” 시행착오·방황 등 진솔하게 서술

는 것이다.

지은이는 도자기 만드는 일을 예로 든다. 도자기를 만드는 일은 단순히 점토에게 무엇이 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도공이 점토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깨진

파편이나 보기 흉한 물건이 된다. 건축기사가 철 나무 돌 같은 재료의 본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단순히 보기 싫은 정도에 그치는

사회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에게 진솔하지 못한 삶의 방식을 강요한다. 그러나 지은이는 “하느님마다 제대로 안 풀리고, 어느 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삶의 의무를 상실하고, 깊은 좌절과 실망에 빠져 있을 때 당신 인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고 말한다.

삶이 그저 지나치는 듯 느껴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이 책은 가르쳐 준다. 값 6천8백원.

출판담당 = 김준근 기자 gamsa@buddha.pia.com

구국·구세의 햇빛

승암 스님 외 지음

수행공동체 불광법회를 창립해 마하비야바리람운동, 보현행원운동, 그리고 잡지와 출판 등 대중종교의 기틀을 다진 금강당 광덕(1927-1999) 스님 시봉일기 3번째 권이 나왔다.



1권 <내일이면 늦으리>와 2권 <징검다리>가 광덕 스님의 법어와 동정을 기록한 책이라면 이번에 출간된 3권 <구국구세의 햇빛> (도피안사)은 광덕 스님과 인연담을 엮은 책이다. 화자는 지음(知音)이라 할 정도로 광덕 스님과 오랜 우정을 나눈 박경훈(전 불교신문 편집국장) 씨와 법어사 행사시절부터 20년 넘게 시봉했던 승암(승암 스님) 도피안사 주지 스님.

“불교신문을 권하지 않았다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고 회고하는 박경훈 씨는 광덕 스님의 어린시절에서부터 불교와의 만남, 행사생활, 동국대 재건 등 스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인연담을 털어 놓는다. 반면 승암 스님은 광덕 스님의 내면까지 읽어 낸다. 그동안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스님의 내면세계와 불교

행자시절·동국대 재건 등 광덕 스님 행적·인연 담아

의 대중화를 위한 서원 그리고 승속을 떠나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야기 등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특히 재가수행자를 위해 식당 작업과 입욕수(入浴五戒)를 직접 작성하는 스님, 신도 한사람이 절에 나오지 않자 주지 자격권을 고안하는 스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내용에서부터 소년소녀가장들의 눈물 어린 사연, 재소자의 참회록, 정든 법당과 헤어져 살 뜻을 잃어버린 청춘남녀들의 사랑병 이야기까지 수많은 편지를 빠짐없이 읽고 일일이 답장해 주시는 스님 등의 이야기는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승암 스님은 광덕 스님을 곁에서 모시며 작성해 두었던 수십권의 기록 노트들을 자료로 ‘광덕 스님이 시봉일기’ 시리즈를 펴내고 있다. 4권 <위법광구> 등 8권까지 출간될 예정이다. 값 1만2천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 순위 | 도서명 | 저·편자 | 출판사 |
|----|-------------|----------|------|
| 1 | 성철스님 시봉이야기 | 원택 김영사 | 김영사 |
| 2 | 파이나두라 대논쟁 | 오진민 윤주사 | 민족사 |
| 3 |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 임지희 | 민족사 |
| 4 | 금강경역해 | 각목 불광 | 광 |
| 5 | 내가 본 부처 | 도법 호미 | 미 |
| 6 | 달라이 라마 행복론 | 류시화 김영사 | 김영사 |
| 7 | 빠띠삼비다따가 여주 | 임승택 | 가산문고 |
| 8 | 참회 참회기도법 | 김현준 효림 | 림 |
| 9 | 현대관음기도영험록 | 성일 불광 | 광 |
| 10 | 라다크에서 찾은 부처 | 연호택 여시아문 | 문 |

도서 안내: (02)737-0695



세계 4대 성불 중 한 분으로 추앙받는 승상 선사 공안집
은 세상은 한 송이 꽃
무심 편집 | 212,000원
현암사 전화: 365-5051~6, 팩스: 373-2729

부처님의 가르침 바탕 인간의 생로병사 다뤄

‘멋지게 살고 멋지게 가는길’ 정태혁 지음



인간이 탄생하여 성장하고 늙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 생로병사는 인간 문제의 요체로 모든 성자나 철학자 종교인들이 씨름해왔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죽지 않는 길을 깨달았다는 점이다.

신간 <멋지게 살고 멋지게 가는길> (연꽃마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본 삶과 늙음, 질병, 죽음에 대한 이야기다. 지은이는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노인문제연구소장 정태혁 박사. 그가 인간이 숙명적으로 맞이하는 생로병사의 문제를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설한다.

지은이는 먼저 생명의 의미를 연극론적 입장에서, 삶을 원시불교와 대승불교적 차원에서 살핀 다음 노병사의 문제까지 인간의 숙명적 고통의 원인을 하나씩 짚어간다. 하지만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러한 분석이 아니다. 어떻게 사느냐, 즉 영원히 멋지게 사는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다. 지은이는 말한다. 언제 죽더라도 멋지게, 보람 있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러면 멋진 죽음도 따른다. 왜냐하면 삶과 죽음이 같기 때문이다.

‘늙음이란 자랑스런 성숙이다’, ‘죽음은 삶의 완성이니 갈곳으로 가는 것이다’ 등 모두 5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연꽃마을 신문에 기획 연재로 실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묶었다. 값 8천원.

“개들은 그저 깨달음에 도달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 깨달음이 바로 깨달음 자체다. 그렇다면 지저분한 털옷을 입고 침을 흘리며, 늘 시끄럽게 짹어대고 먹을 것을 달라고 떼를 쓰며 쾅대는 그 작고 귀여운 수행자들은 누구인가.”

일본에서 20세기 위대한 선사로 일컬어지는 스즈키는 바로 견공들의 모습 자체가 화두이며 불교적인 가르침이라고 단언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체감하지 않고 율가알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삶은 살아볼 가치가 있다

‘네 발 달린 명상가’ 김충현 옮김

믿어서는 안 된다. 견공들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 <네 발 달린 명상가> (인복스)는 바로 이 점을 말하고 있다.

미국의 명상가 주디스 아틀러와 사진작가 토니 터커가 공저한 이 책에는 포인터, 셰퍼독 등 다양한 개들이 기품 있는 자세를 뽐내며 등장한다.

석가모니 부처님, 달라이 라마 등 성인들의 선문답이나 잠언과 함께, 그 말씀들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진리들을 일깨워주는 말들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그 말의 외양은 지극히 평범하다. 어쩌면 그래서 울림이 더 큰지도 모르겠다. 값 7천5백원

경훈 스님의 禪詩 500여편 중 216수 골라 해당 스님 풀이

‘아시게나 우리가 선 이 땅이 낙원이라네’

경훈 스님 지음 해당 스님 풀이



<아시게나, 우리가 선 이 땅이 낙원이라네> (역사비평사)는 무안 약사사 경훈 스님이 쓴 선시를 주해한 책이다.

경훈 스님은 열여섯 살에 출가한 이래 수행 틀들이 떠오르는 선(禪)의 단상을 500여 편의 시로 남겼다. 그 가운데 패봉삼십(快捧三十), 목좌수심(默坐愁心), 장엄세계(莊嚴世界) 등 216수를 추려 두 권에 나눠 담았다. 풀이는 해당담양 금타선원 스님이 했다. 황지우 시인의 형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총격을 받아 출가한 뒤 지리산 등지에서 8년여 수행한 해당 스님이 경훈 스님과 인연을 맺은 것은 경훈 스님의 선시를 대하면서다.

경훈 스님은 “부처님이 간결하게 말씀하신 본성의 넉넉한 자리, 청정본연 진여의 땅을 고해의 이웃들에게 퍼 보이고 싶었다”고 말한다. 해당 스님은 “한국불교 1,600년사에 빛나는 고승들의 선시와 대조하면서 풀이 했다”며 “우리 모두가 이 땅을 낙원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서원하자”고 당부한다. 값 각각 9천5백원.

그 누가 인생을 고해라 하였던가?

이 한 권의 책을 통해 당신도 행복한 미래를 예약할 수 있다.



소원성취를 위한 기도의 맥

전국유명서점 절찬리 판매중

김윤보 큰스님 편저
신국판 355면 값 10,000원

근심 보따리를 풀어놓고 부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준비, 작법, 작단법 기도의 불가사의 한 힘, 그 실상과 방편을 낱알이 모아 엮은 책!
•일기도, 이레(7일)기도, 3·7일(21일)기도, 49일(7·7일)기도, 가정에서의 49제 의식, 100일기도, 108일기도, 1,000일기도, 3,000일기도, 10,000일기도 / 재(齋), 영산제, 생전에수제, 7제, 49제, 사리탑 탑돌이기도, 마니주·마니룬기도, 범룡상돌리기도, 금강저돌리기도, 만다라작법기도, 사경기도 / 산신기도, 용왕기도 등

【총판】운주사(02)3672-7181 ~ 5 【서울】교보문고397-3587 서울문고6002-6002 영풍문고399-5635 종로서적733-2331 범우당 994-4437 만나서적2267-7385 【부산】삼천원248-3582 고려불교예술회관807-6842 부다가야865-4383 영광도서 816-9500 부산도서517-1911 동방서적925-1318 【대구】한일서적423-0781 삼영불교서적421-3980 파계서서적984-4550 【인천】인천불교서적773-9086 【광주】원각사불일서적232-7542 삼복서적222-0258 【대전】보문불교서적253-6446 서종문고536-6700 【강원】관음불교서적642-8880 금강불교서적743-7442 마하불교434-8446 여래불교서적632-9004 원주불교서적748-3993 월정사서적332-9685 【경기】만다라654-6656 옥아불교865-9954 법보서적253-1055 대동서적449-4488 【경남】보문불교서적741-6709 성주사불일서적267-2623 경법불교서적741-2683 제일불교서적742-8174 예인사서적932-7473 【경북】영광도서742-9133 포항문고249-4900 삼문사서적247-8412 학원시284-8250 대원서적770-2586 보승서적 742-6607 불교서적749-1580 영주불교서적631-3940 경주제일서적742-9393 상주제일서적534-2377 【전남】불일서적743-9672 송광사불일서적755-5305 운주사서적374-0668 화엄서적782-1125 【전북】금산사서적584-1354 내사사서적 583-7281 실상사서적636-3822 【제주】동연마을721-4005 불교종합755-9800 약천사서적738-5000 【충남】동학사서적825-7808 【충북】구인사서적423-7100

당신 속에 있는 부처님을 만나십시오! 이제 임오년의 새로운 연운이 시작됩니다. 평소 은혜입은 분, 따뜻한 이웃, 사랑하는 이에게 <삶의 등불>되는 이 책을 선물하십시오.

신라의 빛

권오찬 지음
80명생을 경주에 살며 몸으로 쓴 문화재 서랑!

경주를 8개 권역으로 세분화한 다음 곳곳에 숨겨진 전설·유적·산천·고분·왕릉·사찰은 물론 인형과 풍광까지 담겨 자세한 설명과 함께 헌신 전의 그곳으로 시간여행을 하게 한다.

신라에서 고려·조선까지를 꿰고 있는 정통 경주 역사서
더 이상의 경주 안내서는 없다.

4×6배판 SW지 495쪽 / 값 20,000 / 도서출판 글밭

에태비평
김기문의 요철
김상산

요철복통시키는 해학과 넘치는 여유, 시원한 썰물을 마시는 상쾌함. 타성에 젖은 채 시류에 흘러가고 있는 당신의 이성을 향해 내리치는 아픈 책!

신국판 319쪽 / 도서출판 글밭 / 값 8,000원

TEL. (054)749-0650
FAX. (054)772-5344
E-Mail: gbatc@empal.com

※ 서점에서 미처 구입하지 못한 분은 주문하신 전국 어디든지 배달해 드립니다.